

5월 황금연휴 여행 수요 급증… 보험업계, 맞춤 상품 러시

여행 예약 전년비 189% 증가

카카오페이손보, 단체여행 맞춤
‘함께하는 국내여행보험’ 출시

DB손보, 단체용 승합차 운전자
‘원데이자동차보험’ 보장 확대

캐롯손보, 항공편 지연 보장 특약

다가오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족 단위 나들이부터 해외 장거리 여행까지 다양한 상품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대체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의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 따르면 오는 5월 1~6일 국내 항공, 숙소, 투어·티켓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었다. 특히 호텔 예약은 전년 대비



Chat GPT가 생성한 연휴 여행 보험 관련 이미지.

354% 급증했다.

해외여행의 경우 하나투어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출발하는 패키지 해외여행 예약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39%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모두투어는 42% 증가했고 노랑풍선은 30% 가량 늘었다.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도 주목받고

있다.

여행보험 강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 3월 ‘함께하는 국내여행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출시 1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1만명을 돌파해 인기를 끌고 있다. 기본형, 안심형, 든든형 등 3개 플랜 모두 ▲상해사망·후유장해(1억 원)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1000만원) ▲배상책임·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3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가입 시 일시납 방식이다. 만약 20세(만 19세) 남성 50명과 여성 50명이 2일간 기본형에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는 6만7620원으로 1인당 약 680원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은 단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M.T, 워크숍, 관광, 소풍 등 단체 여행을 중심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DB손해보험은 장거리 이동이 많은 단체 여행객을 겨냥해 자동차보험을 강화했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는 ‘프로미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개설했다. 개정을 통해 단체여행객들의 자동차보험 가입수요를 충족하고자 승합차종까지 대상차종을 확대했다. 최대 보험가입 일수는 7일에서 10일로 늘렸다. 법률비용 지원금 및 자동차상해 특약을 신설해 형사합의금을 최대 2억원

까지 제공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원데이자동차보험 개정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특화 상품도 출시됐다. 캐롯손해보험은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을 선보였다. 지수형 특약은 사전에 정해진 지표(지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금이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특약이다.

캐롯손보의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이용할 때 해당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 시)까지 정액 보험금을 지급한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간편하고 직관적인 보상 절차를 통해 고객이 여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영업통 CEO 배치’ 카드사, 실적 희비… 삼성만 웃었다

1분기 신판잔액 삼성카드 8% 증가
우리 0.55%p, 하나 0.39%p 감소

‘영업통’을 최고경영자로 전면 배치했던 카드사가 1분기 주요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개인신용카드 일시불 잔액은 128조7544억원이다. 전년 대비 3조8116억원 증가했다. 개인신용카드 신용판매(M/S)는 카드사의 시장 점유율 지표로 활용한다.

1분기에 신판 잔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삼성카드다. 개인 신판잔액은 올 1분기 23조4349억원이다. 8.03% 증가했다. 잔액으로 살펴보면 1조7422억원 늘었다. 카드사 8곳 중 상승폭이 가장 크다. 이어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각각 9059억원, 5150억원씩 신판잔

액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삼성카드는 올해 김이태 사장을 맞이하면서 5년 만에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김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서기관,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6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이후 전략그룹장과 대외협력팀장 등을 맡았다. 지난 2024년 삼성벤처투자 대표 시절에는 9조원대 메가펀드에 출자사로 참여하는 등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다.

삼성카드의 신판잔액 확대 배경에는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이 있다. 자동차 등 회당 승인잔액이 높은 분야에 혜택을 강화해 신판 잔액을 늘렸다는 입장이다. 이달 네이버페이 신차금융 조회 결과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오토캐시백 비중은 2.4%로 카드사 중 가장 높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 등 업종에서 혜택

을 강화한 결과, 신용판매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하나카드의 신판잔액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점유율로 살펴보면 지난해 1분기 우리카드가 카드사 8곳 중 7.78%를 차지했지만 올해 7.23%로 0.55%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의 점유율은 7.38%에서 6.99%로 0.39%p 줄었다.

우리카드는 올해 진성원 대표이사가 지휘봉을 잡았다. 우리카드 최초 외부 출신 대표다. 진 대표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을 거쳤다. 실무로 시작으로 카드업계에만 30년간 몸담은 전문가다. 앞서 현대카드 CLM실장직을 역임할 당시 6%대 시장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나카드는 ‘영업통’을 배치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연초 성영수 대표가 지휘봉을 잡으면서다. 성 대표는

하나은행 재직 시절 경기영업본부장과 외환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영업 일선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로 손꼽힌다. 취임 당시 ‘트래블로그’ 영업과 법인카드 영업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하나카드는 법인카드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3월말 카드사 8곳의 법인 회원 수는 124만5000명이다. 전년 말 대비 1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하나카드는 1분기 3000명의 법인 회원을 유치하면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영업실적을 거뒀다. 향후 과제는 개인신용카드 영업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기준 대표가 그대로 지휘봉을 잡은 카드사 중 신판 잔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카드다. 전년 동기 대비 9701억원 증가했다. 이어 비씨카드의 신판잔액은 2910억원 상승했으며 롯데카드는 200억원 올랐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대선여파 집값 들쭉 세종시 매매가 꺾중 쭈쭈에 11만명 몰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집값이 들쭉이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실 등의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작년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세종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소위 ‘쭈쭈’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11만명 가까이 몰리기도 했다.

2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한 주간 0.23%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지만 지난 14일 기준 주간 변동률이 0.03%로 7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세종 집값을 끌어 올린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이른바 ‘세종 천도론’이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도 ‘세종 천도론’이 부상하면서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간 4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에 세종시로 온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묵혀뒀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빠르게 재부상했다”며 “현재 국토 불균형의 심화가 정점을 이루면서 빚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에 쌓여있던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무순위 청약 물량에는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 산울마을 5단지 세종파밀리에 더파크(행복중심복합도시 6-3M2블록)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0만8057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 차익은 물론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청약플러스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다.

/안상미 기자

현장에서 조립한다… GS건설, ‘레고식 아파트’ 실증 완료

GPC 공장 내 목업 완공·검증 마쳐
작업량 축소, 사고위험 감축 기대

GS건설이 모듈러 주택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레고식 블록 아파트 시대에 한 발 다가섰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충북 음성에 GPC 공장 부지내에서 조립식 콘크리트(PC 공법) 부재로 만든 공동주택 목업(실제와 동일한 시험 건축물)을 완공하고, 주거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목업은 탈현장 건설 기술을 활용해 기존 철근 콘크리트(RC)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 시장의 새로운



PC 공동주택 내부 실내투시도 예시.

/GS건설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PC 공법은 공장에서 만든 콘크리트 기둥, 보, 슬래브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다. 기존 철근 콘크리트(RC)공법은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방식으로 날씨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단점을 보완했다.

이번에 GS건설이 준공한 PC 공동주택 목업은 전용면적 59㎡ 및 84㎡의 4베이 평면을 구현했으며, 30층 이상의 높이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골조 부재는 GPC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PC 공법으로 시공됐고, 기계설비 및

전기공사, 내·외부 마감 공사까지 모두 실증을 마쳤다. 특히, GS건설에서 특허 출원한 PC 접합부의 구조 강화 기술이 적용됐다. 강화된 구조를 통해 품질 향상은 물론 현장 작업량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S건설은 이번 목업에서 바닥 충격음, 방수, 단열, 난방, 기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주거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고,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방식의 기존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주거 성능을 확보했다. 또한, PC로 만든 공동주택의 장점 중 하나는 세대 내부 기둥이 없고 100% 건식 벽체를 적용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내부 구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평면 구성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